

단통법 폐지...휴대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까

10년만...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지원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사용자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 규제 개혁'에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이동사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단통법 폐지로 상한선이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중고 단말기·무약정 단말기·약정기간이 끝난 단말기 등의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요금을 25% 가량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러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 논란이 한창이던 시절, 이동사들의 지원금 출혈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단통법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이동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의

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차별적 지원금 정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불법 보조금이 유행하던 단말기 유통 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동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가입자 유치경쟁이 위축됐고, 값비싼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 간 자유로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정부는 단통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펼쳐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동사들은 오히려 비

용 절감을 통해 자사 이익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동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 6000억원에서 2022년 4조383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영업이익 4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점을 근거로 "단통법 시행에도 서비스 증진이나 요금 인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해 이동사·대리점들이 자유롭게 지원금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단통법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동사와 제조사는 휴대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매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 매장별, 시기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쏟아 IT 정보

카카오, 설맞이 최대 94% 할인

카카오는 커머스CIC의 카카오톡 선물하기·쇼핑하기, 카카오쇼핑 라이브가 설 명절을 맞아 선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다음 달 12일까지 '설 선물' 프로모션 탭을 오픈한다. 1+한우 선물 세트 등 인기 설 선물을 최대 55% 할인 판매한다. 구매 금액별 1만5000원, 50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해당 탭 '오늘의 추천 선물'을 카카오톡 친구에게 공유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990원에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구매 이력이 없는 이용자들은 '첫 구매 전용 페이지'에서 900원에 인기 선물을 구매할 수 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는 오는 29일까지 매일 신선·건강식, 뷰티 등 브랜드 카테고리별 대표 상품을 최대 94% 할인된 특가로 판매하는 '2024 갑진년 값진 세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KT,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G 요금제가 최저 3만원대로 내려간다. 5G에서도 남은 데이터 이월이 가능해지고, 소량 데이터 요금제 구간이 다양해진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KT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G 요금제 개편 이용 약관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KT는 월정액 3만 7000원에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 '5G슬림 4GB'부터 '5G슬림 21GB' (5만8000원)까지 새 중저가 5G 요금제 8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선물요금제 '넷켓'을 비롯한 일부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에서 이미 최저 3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 5G 요금제에서 최저 구간이 3만원 대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나온 KT '5G슬림 4GB' 요금제에 선택약정 25% 할인을 적용하면 실제로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국민 절반 이상 적립 혜택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포인트 혜택을 경험한 사용자가 2670만명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경험한 셈이다.

연간 누적 1만원 이상 적립 혜택을 받은 사용자는 1450만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5만원 이상의 적립 혜택을 누린 사용자는 2022년 대비 10% 증가한 630만명으로 집계됐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3월 도입된 마그네틱보안 전송(MST) 기반의 '네이버페이X삼성페이 현장결제'가 적립 혜택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전국 300여만개 결제처에서 네이버페이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 '2024 새해 福 많이 받아 용!'

2월 9·11·12일 공연·체험 12종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24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 福 많이 받아 용!'을 개최한다. <사진>

이번 특별행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설 당일 제외) 3일간 진행되며 과학관 상설전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12종이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새해 소망을 적어보는 '정릉에게

소원을 빌어봐!'와 전통놀이 및 전통악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 자동차 특별전의 해설퀴즈와 설맞이 특별교육도 운영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설맞이 인형극(9일), 전통악기와 현대악기를 이용한 퓨전 국악공연(11일), 설맞이 구연동화(12일), 설 가족극장(9-12일) 등이 마련됐다.

한편 과학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오픈 관람객에게 분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통합관람권을 제공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가상 아이돌과의 1:1 대화 '챗 시우'

그룹 '메이브' 리더...외국어 지원

넷마블은 계열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의 가상 아이돌 그룹 '메이브'(MAVE:)의 리더 '시우'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챗 시우'(Chat SIU:)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메이브' 데뷔 1주년을 맞아 출시되는 '챗 시우'는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와 업스테이지가 공동 개발한 '페르소나 AI'에 기반한 채팅 서비스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특별 운영된다.

'챗 시우'는 '메이브'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시우의 캐릭터와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 말투 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우'가 이전에 나눈 대화 내용과 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시우가 직접 이미지를 전달하는 등의 소통도 가능하다. '챗 시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를 지원하며, 메이브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 대 다수로



가상 아이돌 그룹 '메이브'의 리더 '시우'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챗 시우'.

소통하는 기존의 아이돌 채팅 서비스와 달리 팬들과 1:1 대화가 가능한 것이 강점"이라며 "팬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다른 멤버로의 확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OTT 적정 구독료 월 7천원...실제는 1만2천원

넷플릭스 가장 많이 이용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들은 유료 OTT의 적정 구독료를 월 7000원대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만2000원대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다이렉트미디어랩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개최를 기념해 미국 현지에서 열린 '미디어·통신·엔터테크·소셜 2024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발제에서 국내 전체 OTT 이용률은 86.5%, 유료 OTT 이용률은 55.2%로 집계됐으며 구독자들은 평균 1.8개의 유료 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구독자들은 유료 OTT의 적정 구독료를 7006원으로 인식하며 이는 유료 방송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인 8646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유료 OTT를 이용하기 위한 월평균 지출은 1만2005원으로 집계됐으며 월 최대 지급 의사액은 1만5995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간 OTT 서비스 이용률은 유료 서비스의 경우 넷플릭스가 50%로 가장 높았고 티빙(13.2%), 쿠팡플레이(10.9%), 디즈니플러스(8.8%), 웨이브(8.6%), 왓챗(3.0%) 순이었다. 무료 서비스의 경우 유튜브가 77.9%로 압도적 이었고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가 각 1.7%였다.

연령별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13-19세는 79.2%, 20대는 84.3%, 30대는 85.4%, 40대는 71.8%로 높았으나 50대부터 급감해 50대는 50.6%, 60대는 20.0%, 70세 이상은 6.2%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52.6%, 남성 47.4%로 여성이 근소하게 많았다.

노 소장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OTT 등 디지털 매체 보편화의 진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통합법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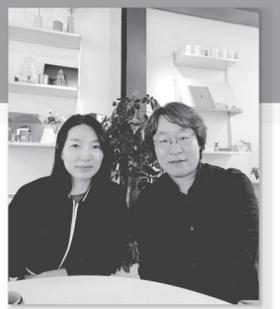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